



# 광주시민의 위대한 도전 정신... 드디어 해냈다

국제 수준 스포츠 도시 인프라 확보

1조5천억원 직·간접 경제효과 유발

## 의미와 경제 파급 효과

브뤼셀=윤영기기자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20 월드컵) 유치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인 'U-20 월드컵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U-20 월드컵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으므로써 문화도시로서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통해 극 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국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의미=광주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로 국제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제 경기 대회 운영 능력을 인정받으면 아시안 게임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03년 U-20 월드컵을 개최한 대구시는 비약적인 도시 발전을 이뤘다. 이를 발판으로 대구는 세계 3대 베이징 스포츠 대회인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개최권을 따내는 등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은 1986년, 부산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비약적으로 앞당겼다.

영국의 셰필드는 1991년 U-20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경제 환경 재개발 통해 문화산업 도시로 거듭났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지난 1992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했다. 가깝게는 일본의 후쿠오카도 1995년 U-20 월드컵 개최로 도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스포츠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평화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공통 언어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 유치로 광주가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가 광주와 한국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국가 브랜드 상승과 이미지 제고 등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가 가치'까지 따진다면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가져다 줄 효과는 매우 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대외 경제 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U-20 월드컵 개최로 생산 유발 효과 8천 157억 원, 부가 가치 유발액 3천 97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만 5천 820명 등 1조 5천 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도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법이 제정되면 도로나 지하철 등 도시 기반 시설은 물론 국제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통상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은 50%, 체육 시설은 30%의 국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U-20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투자·기업 유치는 물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등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U-20 월드컵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며 "U-20 월드컵 유치는 광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penfoot@kwanju.co.kr

## 정부 전폭 지원 이끌어낸 특별법 제정

## 범시민 동참 속 꼼꼼한 준비 성공 관전

### 향후 과제

광주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라는 쾌거를 일궈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선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대회 개최까지 남은 6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대회 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지원이 관건이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U-20 월드컵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대회 성공 개최인 재정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법제화해 대회를 지속·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2003년 U-20 월드컵을 치른 대구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을 토대로 조직위를 꾸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 가깝게는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도 지난해 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해 SOC 건설 등 박람회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규격의 스포츠 시설 정비, 호텔, 선수촌 등 숙박 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유니버시아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2개월 이내 조직위 구성은 무리지만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브뤼셀의 환호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둘체 라 올프 호텔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로 광주시가 선정, 발표되자 박광태 광주시장, 정의화 유치위원장, 광주시 의원 등이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시민기자단>

## 1년전 좌절 한방에 날린 '환희의 드라마'

### 도전에서 성공까지

광주시가 2015년 하계 U-20 월드컵 유치를 확정짓은 것은 2년 여에 걸친 좌절과 환희의 대하 드라마다.

2013년 U-20 월드컵 도전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광주시는 재도전 성공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견언을 새삼 확인했다.

광주시의 U-20 월드컵 도전사는 지난 200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광태 시장은 2013년 U-20 월드컵 유치 선언 기자회견에서 "광주를 국제적인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가를 빛나게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서 '우물 안'에 안주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광주의 첫 도전은 석유 자본과 러시아 정부의 전폭 지원을 등에 업은 카잔에 의해 좌절됐다. 광주시는 불과 5개월여에 걸친 짧은 유치전에서 카잔을 끝까지 주격하는 분전으로 국제 스포츠계에 깊은 인상을 심었다는 점에서 위인을 찾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하계 U-20 월드컵을 세계 대학생들의 제전이지만,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보다는 상업성,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중계권료, 광고 수익, 입장권 판매 등이 부진하다면 흑자 대회라는 계획은 크게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대회 개최 비용의 80% 이상을 정부·지자체 재원으로 총집기로 해 정부가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느냐 여부가 대회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7개 종목을 치를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스포츠 시설 정비, 호텔, 선수촌 등 숙박 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유니버시아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종목은 육상, 농구, 펜싱, 축구, 체조(리듬, 기계), 수상경기(수영, 다이빙, 수구), 유도, 탁구, 테니스, 배구 등 10개다. 대회 개

### 첫 도전 카잔에 막힌 후 부정적 여론

### 재도전 결정 후 치밀한 준비로 개가

FISU 현지 실사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실속 맞춤형 실사전략으로 '준비된 도시'라는 강점은 최대한 부각, 호평받았다.

시는 대회 정식 종목을 치를 17개 경기장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 건과 국제적인 스포츠 인프라, 범 시민적 유치 열기 등 최적 인프라를 내세워 실사 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정부의 지원 사격도 광주시의 유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사단 임국 첫날인 지난 4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FISU 총회에 참석해 "광주 U-20 월드컵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확약, 정부의 지원 의지를 실사단에 각인했다.

2013년 대회 유치에서 빠이풀 실패를 경험한 광주시의 경험과 노하우도 대회 유치의 밀거름이다. 시는 지난 2013년 대회 도전 과정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한편, 광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뒷심이 됐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강력한 경쟁 도시였던 캐나다 에드먼턴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6일~9일까지 진행된

### 어떻게 치러지나

광주시가 개최하는 2015년 제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170개 회원국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광주시가 FISU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 따르면 대회는 2015년 8월 초 11일간 광주 및 인근 시군 지역에서 열리며, 모두 17개 종목에서 전세계 대학생들이 기량을 겨루는 것이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대회를 주최하고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정식 종목은 육상, 농구, 펜싱, 축구, 체조(리듬, 기계), 수상경기(수영, 다이빙, 수구), 유도, 탁구, 테니스, 배구 등 10개다. 대회 개

### 170여국 1만여 대학생들

### 17개 종목서 기량 겨룬다

(Culture Universiade)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회 운영 계획은 조직위원회가 용역 등을 통해 수립하게 된다.

광주시는 유치신청서에서 "대회 기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해 아시아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컬처유니버시아드

### U-20 월드컵 일정

▲2008년 9월 22일=박광태 광주 시장 U-20 월드컵 재도전 선언

▲10월 15일=FISU에 유치 의향 서 제출

▲12월 12일=정부 U-20 월드컵 유치 승인

▲12월 26일=광주 U-20 월드컵 유치 위 청첩총회

▲2009년 3월 14일=유치신청서 FISU 제출

▲4월 6일~9일=FISU 평가단 광주 실사

▲5월 23일=FISU 총회 광주 개최 확정